

##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열왕기하 —

임미영\*

### 1. 열왕기하 1:8상반

####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יֹּאמְרוּ אֵלָיו אִישׁ בַּעַל שֵׁעַר וְאֶזְרָא עוֹד אֶזְרָא בְּמַתְנֵיוֹ
『개역개정』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u>털이 많은 사람</u> 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새번역』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 <u>털이 많고</u> , 허리에는 가죽 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공동개정』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u>털옷을 걸친 사람</u> 이었습니다.”
『새한글』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다. “ <u>털옷을 입은 사람</u> 이었습니다. 가죽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지요.”
ESV	They answered him, “He wore <u>a garment of hair</u> , with a belt of leather about his waist.”
NET <sup>2</sup>	They replied, “He was <u>a hairy man</u> and had a leather belt tied around his waist.”
ZB	Und sie sagten ihm: Es war <u>ein Mann mit einem Fellmantel</u> , und um seine Hüften war ein lederner Schurz gebunden.
LB	Sie sprachen zu ihm: Er hatte <u>einen Mantel aus Fell</u> und

\* Bar Ilan University, Israel에서 고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 국제성서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안양대학교 겸임교수. [adiofpooh@hanmail.net](mailto:adiofpooh@hanmail.net).

einen Ledergurt um seine Lenden.

BB

Sie antworteten ihm: »Er trug einen Mantel aus Ziegenhaaren und einen Ledergürtel um seine Hüften.«

##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번역어

אִישׁ בֶּעַל שֵׁעָר(이쉬 바알 쎄아르)를 ‘털옷을 입은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개역개정』, 『새번역』),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공동개정』).

##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אִישׁ בֶּעַל שֵׁעָר(이쉬 바알 쎄아르)는 세 개의 명사가 연결되어 가장 뒤의 ‘털’을 의미하는 단어 שֵׁעָר(쎄아르)가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의 단어 בֶּעַל(바알)을 꾸며주게 되고 다시 가장 앞에 있는 ‘남자 혹은 사람’이라는 단어 אִישׁ(이쉬)를 규정하게 됩니다. 결국 『개역개정』에서는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여 ‘털의 주인인 사람’ 즉 ‘털이 많은 사람’으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칠십인역에서도 δαυύς 즉 ‘털이 많은’으로 번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앞서 열왕기하 1:1-7의 배경을 통해 번역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의 임금 아하시야가 병들었을 때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에 대해 묻기 위해 심부름꾼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임금이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돌아와 그대로 아하시야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엘리야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하시야가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묻습니다. 그들은 그가 אִישׁ בֶּעַל שֵׁעָר(이쉬 바알 쎄아르)로 가죽 허리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바로 그가 엘리야라는 것을 단번에 압니다. 그러므로 8절의 문장은 엘리야를 특정할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털옷’은 스가랴 13:4에서 אֶדְרֶת שֵׁעָר[아데레트 쎄아르] 예언자의 옷으로 혹은 마태복음 3:4의 세례 요한이 입은 낙타 털옷에서처럼 선지자가 입는 표식과 같은 의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뒤에 등장하는 가죽 허리띠는 분명 이 털옷을 여미는 허리띠로 그의 선지자의 의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던 선지자의 ‘털옷’은 열왕기하 2:8 이후

등장하는 אֶרְרָת (아데레트, ‘겉옷’)로 묘사되어 그의 선지자로서 능력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강을 갈라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할 때 이 옷을 사용했으며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 옷을 받은 엘리사는 강을 가르는 같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가 그 옷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여리고에 있던 예언자의 무리들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어 번역 성경들 모두와 영어성경 ESV의 경우 역시 אֵשׁ בַּעַל שָׁעָר (이쉬 바알 쎄아르)를 ‘털옷’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1.4. 『새한글』 열왕기하 1:8상반의 가르침

아열대성 기후의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옷감은 리넨(‘세마포 혹은 고운 베옷’, [『개역개정』])이었습니다. 이 옷감은 주로 이집트산으로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1:42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임금에게 하사받은 의복이었으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의 의복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달리 ‘털옷’은 무두질하지 않고 털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보온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런 털옷은 아열대성 기후의 이스라엘에서는 낮의 열기에 적합한 의복은 아닙니다. 이 투박하고 거친 의상은 선지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가 입은 의상을 묘사하는 것만으로도 선지자 엘리야임을 아하시야 임금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찌면 이 거친 의상을 입은 선지자와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입은 의상으로 이미 우리는 우리의 행동거지가 규정되기도 하니까요. 세상의 곱고 부드러운 리넨을 입는 대신 거칠고 까끌거리는 ‘털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앞에 놓인 강을 가르는 능력의 독특한 특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털옷’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 신앙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2. 열왕기하 4:10

###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sup>5</sup>

בְּעֶשְׂהָזָא עָלֵיתִי קִיר קִמָּה וְנָשִׂים לֹא שָׁם מִטָּה וְשִׁלְחָן וְכֶסֶף

	וְהָיָה קְבוֹאָה אֵלָינוּ יְסֻדֵּר שְׁמֵהּ:
『개역개정』	<u>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u> 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u>촛대</u> 를 <u>두사이다</u> 그가 우리 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새번역』	<u>이제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 하나 만들</u> <u>어서</u> , 거기에 침대와 탁자와 의자와 <u>등잔</u> 을 갖추어 놓 아 <u>둘시다</u> .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 곳에 들어가서 쉬시도록 합시다.”
『공동개정』	<u>옥상에 작은 방을 하나 꾸미고</u> 침대와 상, 의자와 <u>등</u> <u>을 갖추어서</u> 그분이 우리 집에 들르실 때마다 그 방에 모시도록 합시다.”
『새한글』	<u>벽을 갖춘 작은 위층 방을 만듭시다</u> . 그분을 위해 거 기에 침대, 탁자, 의자, <u>등불받침대</u> 를 넣어 <u>둘시다</u> . 그 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면 거기에 들어가 머무실 수 있 도록요.”
ESV	<u>Let us make a small room on the roof with walls</u> and put there for him a bed, a table, a chair, and <u>a lamp</u> , so that whenever he comes to us, he can go in there.”
NET <sup>2</sup>	<u>Let's make a small, private upper room and furnish</u> it with a bed, table, chair, and <u>lamp</u> . When he visits us, he can stay there.”
ZB	<u>Lass uns ein kleines gemauertes Obergemach herrichten</u> , dass wir ihm dort Bett, Tisch, Stuhl und <u>einen Leuchter</u> <u>hineinstellen</u> . Und wenn er zu uns kommt, kann er dort einkehren.
LB	<u>Lass uns ihm eine kleine gemauerte Kammer oben</u> <u>machen und</u> Bett, Tisch, Stuhl und <u>Leuchter hinstellen</u> , damit er dort einkehren kann, wenn er zu uns kommt.
BB	<u>Lass uns doch ein kleines Zimmer für ihn herrichten</u> . Dort <u>stellen</u> wir für ihn ein Bett auf, einen Tisch mit einem Stuhl und <u>eine Lampe</u> . Wenn er zu uns kommt, kann er sich dort zurückziehen.«

##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에는 변화가 없으나 『개역개정』에서 10절을 시작하고 있는 ‘청하건대’를 생략하고 문장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 (2) 번역어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 וְנָשִׁים, ... נִשְׁחָה-נָּא(나아세-나 ..., 베나심)을 ‘우리가 ~합니다. ... 그리고 ~ 돕시다’로 מְטָנָה קִיר עֲלֵיתָּ(알리야트-키르 크타나)와 מְנוּחָה(메노라)를 시대적, 문화적 의미를 담아 번역했습니다.

## ① וְנָשִׁים, ... נִשְׁחָה-נָּא(나아세-나 ..., 베나심)의 번역

‘청하건대 ~ 만들고 ~ 두사이다’(『개역개정』), ‘이제 ~ 만들어서 ~ 돕시다’(『새번역』), ‘~ 꾸미고, ~ 갖추어서’(『공동번역』), ‘~ 만듭시다, ~ 돕시다’(『새한글』).

## ② מְטָנָה קִיר עֲלֵיתָּ(알리야트-키르 크타나)의 번역

‘작은 방을 담 위에’(『개역개정』),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을’(『새번역』), ‘옥상에 작은 방을’(『공동개정』), ‘벽을 갖춘 작은 위층 방을’(『새한글』).

## ③ מְנוּחָה(메노라)의 번역

‘춧대’(『개역개정』), ‘등잔’(『새번역』), ‘등’(『공동개정』), ‘등불받침대’(『새한글』).

##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וְנָשִׁים, ... נִשְׁחָה-נָּא(나아세-나 ..., 베나심)은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로 연결된 1인칭 복수의 청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Let us ~’로 독일어 성경들은 ‘Lass uns ~’로 ‘우리가 ~ 합니다. 그리고 ~ 돕시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청하건대 ~ 만들고 ~ 두사이다’로 번역하여 여인이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어투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는 히브리어의 נָּ(나)가 영어의 please로 종종 번역되면서 ‘제발’이라는 부탁의 의미를 담아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נָּ(나)를 반드시 이러한 의미로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4:8에서 이 여인이 등장할 때,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일반적으로 여인의 남편부터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그녀를 넉넉하게 사는 한 여인으로 엘리사를 머물게 하여 음식을 대접한 상당히 능동적인 행동을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어투는 남편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의를 구하는 ‘(우리가) ~ 만듭시다. 그리고 ~ 돕시다’로 번역하였습니다.

(2) 히브리어 성서의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 배경은 우리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집, 의상, 음식은 때로 우리에게 생소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구한말 ~ 일제강점기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최대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38년 이후 한글 맞춤법과 표기법에 맞게 개역과 개정을 반복하면서 원어에 가까운 의미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더불어 최근 발견된 많은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고대 이 지역의 일상을 보다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① עֲלִית־קִיר קטנה(알리야트-키르 크타나)의 번역이 이러한 결과에 부합되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3:20-25; 열왕기상 17:19-23; 열왕기하 1:2, 23:12; 역대상 28:11; 역대하 3:9; 예레미야 22:13-14 등에서도 등장하는 עֲלִיָּה(알리야)는 ‘다락’으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우리의 다락과는 그 형태가 다릅니다. 주로 단층이었던 우리의 전통가옥은 난방을 위해 온돌을 사용했는데 온돌을 덮히기 위해서는 방바닥보다 낮은 위치의 아궁이에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궁이는 주로 부엌에 있었고 천장이 높아진 부엌의 윗부분을 막아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우리는 ‘다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락의 출입은 부엌 옆에 있는 방의 벽을 뚫어 가능했습니다. 다락은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이불이나 옷가지 등을 두는 공간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현대어의 다락 역시 지붕 아래 크지 않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의 עֲלִיָּה(알리야)는 ‘올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동사 הָלַךְ(알라)에서 파생한 명사로 올라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가옥구조는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층은 주로 가축들이, 2층은 사람이 사는 거주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이 공간을 ‘다락’이 아닌 ‘2층 혹은 위층’으로 번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2층을 의미하는 עֲלִיָּה(알리야)가 열왕기하 4:10에서는 ‘담 혹은 벽’을 의미하는 קִיר(키르)와 ‘작은’을 의미하는 קטנה(크타나)와 함께 쓰여 있어 『개역개정』에서는 ‘작은 방을 담 위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번역이 ‘위’라는 단어로 2층을 연상할 수 있게는 하지만 ‘담’이라는 단어로 인해 정확한 방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2층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옥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새번역』의 ‘옥상에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은 마치 지붕 위에 덩그러니 방 하나가 있는 우리네 옥탑방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새한글』에서는 최대한 원어를 그대로 담아 ‘벽을 갖춘 작은 위층 방’으로 번역했으나 NET<sup>2</sup>에서 번역한 ‘a small, private upper room’에서처럼 ‘private’, 즉 개인 독방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수넬의 여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2층에 벽을 쳐서 작은 방을 만들어 엘리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방을 제공한 것입니다.

② מִנְיָה(메노라)를 『개역개정』에서는 ‘촛대’로 번역했으나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왁스로 만든 긴 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여 불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7개 혹은 9개의 초를 쬔을 수 있는 촛대를 사오는데 이는 초를 사용하게 되면서 ‘여호와 의 집(성전)’의 등불받침대(등잔대) 혹은 수전절을 상징하기 위해 현대화한 것입니다. 『새번역』에서는 ‘등잔’으로 번역하였으나 이 단어를 현대 젊은 세대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개정』에서는 ‘등’으로 번역하였으나 현대인들에게 등은 형광등, 백열등 등 빛을 발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מִנְיָה(메노라)를 기름을 두어 등불을 밝히는 ‘등불받침대’로 성경 전체(출 25:31-39; 레 24:4; 민 3:31; 왕상 7:49; 대상 28:15 등)에서 번역을 통일하였습니다.

#### 2.4. 『새한글』 열왕기하 4:10의 가르침

고대 이스라엘 가옥구조의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새로운 번역을 알맞게 활용했을 때 성경의 의미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구절의 활용은 수넬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담 위에 작은 방을 마련하고 음식과 쉴 공간을 제공했기에 그녀에게 아들을 갖게 했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도 살려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우리는 열왕기상 17장에서 만나는 사르밧의 남편 여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녀 역시 엘리야에게 자신과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했던 남은 음식을 대접했기 때문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기름과 곡물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갑자기 죽자 엘리야는 그가 기거하던 다락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מִנְיָה(알리야)를 다락이나 담 위의 작은 방이 아닌 ‘2층 혹은 위층’으로 번역할 때 이들은 창고로 사용했거나 옥탑방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르밧의 여인이 남편을 여의었다는 것은 경제적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녀의 집은 작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은 1층에 가축 역시 남아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자신이 거주하던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으로 보아 그녀는 엘리야에게 2층을 내어주고 가축우리로 사용하던 1층에 기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임금 아합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

고 은둔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피해를 입을 지도 모르는 가운데 엘리야에게 자신의 거처를 내어준 것입니다. 스스로도 살기 넉넉하다고 말했던 수넴 여인의 경우, 그녀는 사르밧 여인의 집보다는 여유롭고 큰 집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가족이 거하는 집 2층에 능동적인 자세로 돈을 들여 벽을 치고 선지자 엘리사가 기거하기 편하도록 개인 독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마치 현대의 게스트룸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섬김의 모습은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일을 위하여 자신의 거처를 내어주되 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용감했으며 자신의 노력과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들을 갖게 되고 죽음에서도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 열왕기하 13:17하반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וַיֹּאמֶר חִזְקִיָּהוּ הַשֹּׁמֵרָה לֵיתָהּ וְחִזְקִיָּהוּ הַשֹּׁמֵרָה בְּאֶרֶם יְהוֹכִיָּה אֶת־אֶרֶם בְּאֶפֶק עַד־כָּלָהּ:
『개역개정』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u>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u> 곧 <u>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u> 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새번역』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 <u>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u> 임금님께서서는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완전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공동개정』	왕이 활을 쏘았다. 그러자 엘리사가 “ <u>그 화살로 야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화살로 시리아를 쳐 이기실 것입니다.</u> 임금님께서서는 아벡에서 시리아 군을 여지없이 쳐부수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새한글』	그가 활을 쏘자 엘리사가 말했다. “ <u>여호와와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를 쏘는 승리의 화살이지요.</u> 임금님은 아벡에서 시리아를 쳐서 끝장내실 겁니다.”
ESV	and he shot. And he said, “ <u>The LORD's arrow of victory, the arrow of victory over Syria!</u> For you shall fight the Syrians in Aphek until you have made an end of them.”
NET <sup>2</sup>	and he did so. Elisha said, “ <u>This arrow symbolizes the</u>



- victory the LORD will give you over Syria.** You will annihilate Syria in Aphek!”
- ZB Und er schoss. Da sprach er: **Ein Siegespfeil des HERRN! Ein Siegespfeil gegen Aram:** In Afek wirst du Aram vernichtend schlagen.
- LB Und er schoss. Elisa aber rief: **Ein Pfeil des Siegs vom HERRN, ein Pfeil des Siegs gegen Aram!** Du wirst die Aramäer schlagen bei Afek, bis sie aufgerieben sind.
- BB Und Joasch schoss. Dabei rief Elischa: »**Dieser Pfeil steht für den Sieg, den der HERR dir schenken wird.** Er steht für den Sieg über Aram. Bei Afek wirst du die Aramäer schlagen.«

###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

#### (1) 번역어

חֵץ תְּשׁוּעָה(헤츠 테슈아)를 모두 ‘승리의 화살’로 번역하고 전치사의 의미를 고려해서 번역했습니다.

##### ① חֵץ תְּשׁוּעָה לַיהוָה(헤츠 테슈아 라아도나이)의 번역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개역개정』),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새번역』), ‘그 화살로 야훼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공동개정』), ‘여호와 승리의 화살입니다.’(『새한글』).

##### ② חֵץ תְּשׁוּעָה בְּאַרָם(헤츠 테슈아 바아람)의 번역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개역개정』), ‘시리아를 이길 승리의 화살입니다.’(『새번역』), ‘그 화살로 시리아를 쳐 이기실 것입니다.’(『공동개정』), ‘시리아를 쏘는 승리의 화살이지요.’(『새한글』).

###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히브리어 תְּשׁוּעָה(테슈아)는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יָשַׁע(야샤)에서 파생한 ‘구원’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תְּשׁוּעָה(테슈아)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תְּשׁוּעָה(테슈아)는 사무엘상 11:9, 11과 같은 상황처럼 여호와가 곤란한 상황이나 억압 속에서 구출하는 행위와 함께 사용됩니다. 사사기 15:18이나 역대상 11:14 같은 전쟁에서 여호와와 개입으로 일어나는 큰 구원은 곧 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됩니다. ‘구원

의 화살’이라고 번역한 『개역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한글 번역본에서 חֶזֶק תְּשׁוּעָה(헤즈 테슈아)는 ‘승리의 화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는 영어 번역본과 독일어 번역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새한글』에서도 ‘승리의 화살’로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은 엘리사의 죽음 이후 전쟁에서 질 것을 두려워한 이스라엘의 임금 여호아스가 엘리사가 죽기전 예언을 받기 위해 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임금으로 화살을 쏘게 했을 때 『개역개정』은 חֶזֶק תְּשׁוּעָה לְיִהוּדָה(헤즈 테슈아 라아도나이)에서 לְיִהוּדָה(라아도나이)의 전치사 לְ(레)를 ‘~를 위하여’라는 본래의 의미로 해석하여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לְ(레)가 정관사와 고유명사 יְהוּדָה(야훼 혹은 아도나이)와 함께 있을 때에는 고유명사에 속함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에게 속한 승리의 화살’로 이는 소유의 의미를 갖게 되고 ‘여호와와 승리의 화살’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개역개정』은 חֶזֶק תְּשׁוּעָה בְּאַרָם(헤즈 테슈아 바아람)을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로 번역했는데 우선 아람의 세계사적 지명인 시리아로 번역했으며 ‘~ 안에, ~에 의한’ 등으로 번역되는 전치사 בְּ(베) 역시 정관사와 함께 사용됨으로 ‘시리아에 딱 붙어서’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 ‘시리아를 (향해) 쏘는 승리의 화살’로 보다 강조되는 표현으로 번역했습니다.

### 3.4. 『새한글』 열왕기하 13:17하반의 가르침

חֶזֶק תְּשׁוּעָה(테슈아)는 구원을 넘어 어려운 상황이나 억압 가운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어 적을 파멸시키고 승리로 이끄심을 의미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호와와 승리의 화살이 시리아를 쏘아 아벡에서 시리아를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벡은 갈릴리 호수 동쪽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마리아에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의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아벡을 언급한 것은 시리아군이 집으로도 돌아가지 못한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전멸하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구원은 우리가 처한 온갖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43:2-6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겠다. 강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 때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 가운데 “해 돋는 동쪽에서부터 내가 너의 후손을 데려오고, 해 지는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아들이겠다. 내가 북쪽을 향해 ‘내놓아라!’ 하고 말하겠다. 남쪽을 향해서는 ‘나의 자식들을 잡아 두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여호아스처럼 알파합니다. 열왕기하 13:18-19에서 엘리사가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겨우 세 번을 치고 멈춥니다. 엘리사가 직접 손을 잡아 주었던 그 승리의 화살은 여호와와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다섯 번 그리고 여섯 번을 쳐 더 확실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 4. 열왕기하 19:15중반

#####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u>יְהוָה אֱלֹהֵי יִשְׂרָאֵל יָשָׁב הַכְּרֻבִּים אִתָּהּ־הוּא הָאֱלֹהִים</u> <u>לְבַדָּךְ לְכָל מַמְלָכוֹת הָאָרֶץ ...</u>
『개역개정』	<u>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u> 주는 천하 만국에 <u>홀로 하나님</u> 이시라
『새번역』	<u>그룹들 위에 계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u> ,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u>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u> 이시며,
『공동개정』	“ <u>만군의 야훼</u> , <u>그룹들 위에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하느님</u> 이여, 당신은 지상의 모든 왕국을 지배하시는 <u>유일하신 하느님</u> 이십니다.
『새한글』	“ <u>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u> , <u>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u> ! <u>주님이야말로</u> 땅의 모든 왕국의 <u>하나님</u> 이십니다,
ESV	“ <u>O LORD, the God of Israel, enthroned above the cherubim</u> , you are the God, <u>you alone</u> , of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NET <sup>2</sup>	“ <u>LORD God of Israel, who is enthroned above the cherubim!</u> <u>You alone</u> are God over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ZB	<u>HERR, Gott Israels, der du über den Kerubim thronst, du allein bist Gott</u> über alle Königreiche der Erde!
LB	<u>HERR, Gott Israels, der du über den Cherubim thronst, du bist allein Gott</u> über alle Königreiche auf Erden,
BB	» <u>HERR, Gott Israels, der über den Kerubim thront! Du allein bist Gott</u> und herrscht über alle Reiche der Erde.

##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어순

히브리어 문장의 첫 낱말 אֱלֹהֵי יִשְׂרָאֵל(아도나이 엘로헤이 이스라엘)의 번역어(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를 맨 처음에 두었습니다.

### (2) 번역어

#### ① אֲשַׁבְּרָם הַכְּרֻבִּים(요셰브 하케루빔)의 번역

‘그룹들 위에’(『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새한글』).

#### ② אֶתְהַרְוֶה הָאֱלֹהִים לְבָרְכָּךְ(아타-후 하엘로힘 레바데카)의 번역

‘주는 … 홀로 하나님이라’(『개역개정』), ‘주님만이 …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라’(『새번역』), ‘당신은 … 유일하신 하느님이십니다’(『공동개정』), ‘주님이야말로 … 하나님이십니다’(『새한글』).

##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 (1) 어순

한국어 사용 독자들이 히브리어로 적힌 성서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의 구조에 맞추어 어순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새한글』에서는 완전히 비문(非文)이 되지 않는 한 원어 성서의 어순에서 드러나는 본문의 중요한 의도와 분위기가 번역에서도 잘 드러나도록 힘씁니다. 원어 성서에서 호격이 명령형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경우와 뒤에 나오는 경우에는 원어 성서의 어순 그대로 번역합니다.

### (2) 번역어

① אֲשַׁבְּרָם הַכְּרֻבִּים(요셰브 하케루빔)은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모두 ‘그룹들 위에’로 번역하였으나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אֲשַׁבְּרָם(요셰브)는 ‘앉아 있다’라는 현재형 동사로 『새한글』에서는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으로 번역했습니다. 위에 비교로 제시된 영어와 독일어 성경 모두 ‘앉아 있다’로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임금 산헤립의 위협이 담긴 편지를 읽고 여호와와 그의 집(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어의 어순에 의하면 그는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이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룹들이 히브리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24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쫓은 후 에덴동산의 동쪽에

크룹들을 두셨습니다. 크룹의 모습이 자세하게 설명된 것은 출애굽기 25:17-22로 증언상자(언약궤)가 만들어졌을 때 상자를 덮는 덮개 양쪽 끝에 금으로 두들겨 만든 크룹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덮개 쪽으로 향한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있는 크룹은 날개를 펴 증언상자의 덮개 위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증언상자가 남아 있지 않아 크룹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가나안 지역, 특별히 두로와 시돈의 예술품에 남겨진 바에 의하면 날개가 달린 형상이 거룩한 장소를 지키고 있어 이와 유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22에서 하나님은 증언상자의 위에 있는 두 크룹 사이에서 우리와 만나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뒤 증언상자는 거룩거룩한곳(지성소)에 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만나 이야기하기를 원했고 크룹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성경이 하나님께서 크룹들 위에 **יָשָׁב**(요쉐브) 즉 ‘앉아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 단어가 ‘거주하다’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은 없지만 하나님은 크룹들 사이에 앉아 거주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② **אֶתְּהוּא הָאֱלֹהִים לְבָרְכָהּ**(아타-후 하엘로힘 레바데카)의 앞에 등장하는 **אֶתְּהוּא**(아타-후)는 ‘당신은 그입니다’라는 의미로 뒤에 등장하는 ‘홀로’라는 의미의 **לְבָרְכָהּ**(레바데카)라는 단어로 인해 ‘주님(당신)이야말로’로 보다 강조하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 4.4. 『새한글』 열왕기하 19:15중반의 가르침

고대 중동 지역에서 신상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상은 각자를 상징하는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둑이나 바알은 비를 가져오는 신이었기 때문에 번개를, 이쉬타르나 아나트는 전쟁을 상징하는 여신이었기 때문에 철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들은 소, 사자, 뱀 같은 각자를 상징하는 동물상 위에 다시 올라가 서 있거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즉 이 동물들은 신들의 발받침대(발등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99:5에서는 여호와가 머무시는 곳에는 여호와의 발받침대(발등상)가 있어 그 앞에 엎드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머무시는 곳은 여호와의 집(성전)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자신을 위한 형상을 결코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증언상자만을 만

들어 그것을 여호와와 발받침대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거기에 여호와와 거주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고대 중동의 동물상 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신상들은 매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 도시를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신상을 확인하고 그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여호와와 집의 크룹들 사이에 거주하셨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는 신에게 방향을 틀곤 했습니다. 그들은 몰렉에게,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되면서 다른 신을 향해 제사가 드려진 높은 곳(산당)과 우상으로 여겨진 기둥(주상)들을 파괴하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간 히스기야는 위급한 때에 여호와와 집을 향합니다. 그리고 크룹들 사이에 거주하고 계신 여호와를 간절히 부릅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여 여호와와 응답하십니다. 결국 산헤립은 죽고 아시리아는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들을 좇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돈, 명예, 자녀 그것들은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는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신들은 아닐까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혹시 세상적인 도움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여호와와 집, 크룹들 사이에 거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주님이야말로 땅의 모든 왕국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 5. 열왕기하 23:29

### 5.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sup>5</sup>	בְּיָמָיו עָלָה פָּרַעְהַ נֹכַח מֶלֶךְ-מִצְרַיִם עַל-מֶלֶךְ אַשּׁוּר עַל-נְהַר-פָּרַת וַיִּלָּךְ הַמֶּלֶךְ יֵאֱשִׁיָּהוּ לִקְרָאתוֹ וַיָּמִיתֵהוּ בְּמַגְדוֹ כִּרְאֹתוֹ אֹתוֹ:
『개역개정』	요시야 당시에 <u>에굽의 왕 바로 느고</u> 가 <u>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u> 유브라테 강으로 <u>올라가므로</u> 요시야 왕이 <u>맞서 나갔더니</u> 에굽 왕이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새번역』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u>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u> <u>앗시리아 왕을 도우려고</u>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u>올라갔다</u> . 요시야 왕이 <u>그를 맞아 싸우려고</u> 므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공동개정』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u>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u>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u>출병하였다</u> . 요시아 왕은 <u>그를 맞아 싸우려고</u> 출동하였다. 그러나 요시아는 므기또에서 파라오 느고와 접전하자마자 전사하였다.
『새한글』	그가 다스리고 있을 때 <u>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 임금</u> 이 <u>아시리아 임금을 만나러</u> 유프라테스강으로 <u>올라갔다</u> . 요시아 임금은 <u>그를 만나러</u> 갔다. 그러나 느고는 그를 보고서 므기또에서 죽였다.
ESV	In his days <u>Pharaoh Neco king of Egypt went up to the king of Assyria</u> to the river Euphrates. King Josiah <u>went to meet him</u> , and Pharaoh Neco killed him at Megiddo, as soon as he saw him.
NET <sup>2</sup>	During Josiah's reign <u>Pharaoh Necho king of Egypt marched</u> toward the Euphrates River <u>to help the king of Assyria</u> . King Josiah marched out <u>to fight him</u> , but Necho killed him at Megiddo when he saw him.
ZB	In seinen Tagen <u>zog Pharao Necho, der König von Ägypten, herauf gegen den König von Assur</u> , an den Eufратstrom. Da zog König Joschijahu <u>ihm entgegen</u> , und jener tötete ihn in Megiddo, als er ihn sah.
LB	Zu seiner Zeit <u>zog der Pharao Necho, der König von Ägypten, herauf gegen den König von Assyrien</u> an den Strom Euphrat. Und der König Josia zog <u>ihm entgegen</u> , aber Necho tötete ihn in Megiddo, als er ihn sah.
BB	Während seiner Regierungszeit <u>setzte Pharao Necho</u> seine Truppen in Bewegung. <u>Der König von Ägypten wollte</u> zum Eufрат <u>ziehen, um gegen den König von Assyrien zu kämpfen</u> . Da <u>stellte sich ihm</u> König Joschija <u>in den Weg</u> . Doch der Pharao tötete Joschija in Megiddo, als er ihn sah.

## 5.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 (1) 번역어

① עָלָה פָּרְעָה נֶכֶחַ מֶלֶךְ-מִצְרַיִם עַל-מֶלֶךְ אַשּׁוּר (알라 파르오 네코 멜레크-미쯔라이임 알-멜레크 아슈르)의 번역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개역개정』),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앗시리아 왕을 도우려고’(『새번역』),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공동개정』),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 임금이 아시리아 임금을 만나러’(『새한글』).

② לְקָרְאוֹ(리크라아토)의 번역

‘맞서 나갔더니’(『개역개정』), ‘그를 맞아 싸우려고’(『새번역』, 『공동개정』), ‘그를 만나러’(『새한글』).

### 5.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אֲשׁוּר מֶלֶךְ-מִצְרַיִם עַל-מֶלֶךְ אֲשׁוּר(알라 파르오 네코 멜렉-미쓰라임 알-멜렉 아슈르)를 『개역개정』은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로 번역하여 느고가 아시리아(앗수르)와는 대척 관계인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לָחָץ(알라)와 아시리아 임금 앞에 등장하는 전치사 עַל(알)을 함께 연결하여 숙어처럼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위에’ 혹은 ‘~에 대해서’로 번역되는 전치사 עַל(알)이 ‘~에 반해서(against)’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어 이를 적용하다 보니 아시리아 임금과 대적의 관계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상반되게도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느고가 아시리아의 임금을 도우려고 올라갔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고에서 번역의 예시로 사용하고 있는 영어 성경들과 독일어 성경들도 ‘돕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느고는 아시리아 임금과 적대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완전히 다르게 번역된 이유는 이 구절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역사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3명의 임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느고로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의 프사메티쿠스 1세의 후계자로 기원전 611~605년경 통치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아시리아의 임금입니다. 느고의 통치 연대를 고려했을 때 이 전쟁의 배경은 기원전 609년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는 기원전 612년에 바빌로니아(바벨론)의 임금 나보폴라사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맞서 싸울 아시리아의 임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를 점령한 나보폴라사르를 ‘아시리아의 임금’으로 보게 되면 느고는 나보폴라사르에 대적해 싸운 게 맞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보폴라사르는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의 임금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의 아버지로 신바빌로니아의 1대 임금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리아의 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려 다른 번역들은 느고가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해 가는 아시리아의 임금을 돕기 위해 원정을 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느고가 한때 이 지역을 점령했던 아시리아가 위기에 처하자 돕는다는 핑계로 북쪽으로 올라가 결국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원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한글』에서는 뒤에 세 번째 임금 요시야가 등장하면서 사용된 לִקְרָאוֹ(리크라아토)와 연결하여 전체 문장을 번역했습니다. 이 문장의 두 중요 동사인 ‘올라가다’라는 의미의 אָלָא(알라)와 접속사로 연결된 ‘가다’라는 의미의 וַיֵּלֶךְ(바엘레크)는 לִקְרָאוֹ(리크라아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לִקְרָאוֹ(리크라아토)는 전치사 לְ(레)와 ‘만나다’라는 의미의 קָרָא(카라)의 부정사, 그리고 목적격 남성 접미 i(오)로 이루어져 있어 ‘만나기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안에서 전치사 לְ(알)+사람은 더 이상 ‘~에 반해서’라는 의미가 아닌 만남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앞에 등장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결국 이 문장은 ‘느고는 아시리아 임금을 만나기 위해 올라갔고 요시야는 그 느고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לִקְרָאוֹ(리크라아토)는 ‘부르다 혹은 주장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קָרָא(카라)에서 파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어필하기 위한 만남이 됩니다. 이를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에서는 ‘맞서 싸우러’로 번역했으나 『새한글』에서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대로 ‘만나러’로 번역했습니다.

#### 5.4. 『새한글』 열왕기하 23:29의 가르침

קָרָא(카라)는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한 목적이 있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임금들의 만남은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정치적인 수싸움이 깃들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에서도 목격됩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도 치밀하게 계산된 왕좌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을 깃들입니다. 느고는 아시리아의 임금을 만나러 올라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의 욕망은 아시리아의 멸망으로 왕좌가 비어버린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출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느고를 만나러 갔습니다. 요시야 역시 아시리아의 공백을 이용해 영토를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중해변의 한 유적지(메짜드 하샤비야후)에서는 요시야 시대의 히브리어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성읍이지만 아시리아에게 빼앗겼던 베델(벤엘)과 사마리아가 요시

야의 종교 개혁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요시야가 직접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열왕기하 23:15-20) 단일 왕국 시대의 영토들을 어느 정도 회복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느고를 만나러 간 것 역시 정치적인 욕망의 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시야가 바빌로니아의 편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아시리아의 부재로 영토를 확장한 그로서는 만약 느고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이 된다면 다시 땅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더불어 느고가 북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가운데 유다 땅의 해안도로를 이용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저지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35:21-22에 의하면 하나님은 느고를 통해 요시야에게 경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변장까지 하면서 싸우고자 했지만 결국 죽음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이 위기의 시간에 느고를 만나러 가지 않고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면 어땠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증언 상자 사이에 앉아 계신 여호와를 불러 만나주시기를 간구했다면 그의 죽음은 그리 빨리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시야가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잘못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만남이 세상적인 목적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 나의 욕망으로 인해 주변의 상황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 삶에 해로운 만남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 길 어디선가 생각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련 없이 돌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갑시다.

#### <주제어>(Keywords)

털옷, 위층 방, 승리의 화살, 크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나기 위해.

Garment of hair, Upper room, Arrow of the victory, Enthroned above the cherubim, To meet.